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844호 (2023년 1월 첫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서울특별시] 여행사 200곳에 약 14억 원 지원 완료... 관광업 회복에 박차	2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4
[부산광역시] 부산·전남·경남 시·도지사, 남해안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뜻 모아 ..	6
[대구광역시] ICT 융합기술로 대구 야간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7
[인천광역시] 백령도행 항공기 2027년 뜬다 ...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타 통과	8
[광주광역시] 내년 문화체육분야 국비 역대 최대	10
[강원도] 11월 강원관광, 아이·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동물 체험관광 각광	12
[전라남도] 전남서 즐기는 '요트체험' 인기만점	14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상품 효과 연구용역 결과 발표	15

[서울특별시] 여행사 200곳에 약 14억 원 지원 완료... 관광업 회복에 박차

- 서울 소재 종합여행업 소기업 200곳 선정, 업체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 재정적 지원 외에도 여행콘텐츠 개발, 관광사업 설명회 등 다방면에서 뒷받침
- 설문조사 결과 만족비율 94.2%... '20년부터 13,080개사, 총 384.5억 원 지원

□ # 사례 1. (주)서울엔투어는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지원받았다. 회사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Viator'에서 서울 시내 궁 여행상품 2종을 판매하였다. 지원사업 덕분에 수수료 부담을 덜고 수월하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10월 한 달간 60건을 판매하였다.

□ # 사례 2. (주)에스엔지유나이티드는 기업 포상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2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에 참여했다.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활용하여 홍보 공간 및 책자를 제작하고,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45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품을 홍보했다.

□ # 사례 3. 지난 7월과 10월, (주)골든투어코리아디엠씨는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다. 판매 과정에서 여행자 보험 및 안전·방역 부문에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반영하여 타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안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수의 포상 관광 계약이 성사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VVIP를 포함하여 100여 명을 웃도는 인원을 대상으로 포상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었던 관광업계가 본격적인 관광 재개 및 급격히 유입되는 외래관광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연말까지 200개 여행사에 약 14억 원의 지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인바운드 여행 : 외국인의 국내 여행

- 시는 서울시 소재 종합여행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계획' 평가를 시행해 지원 대상 업체 200개사를 선정하였다.
- 선정된 여행사에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관련 비용을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업체 중 평가 결과 상위 60위에 속하는 우수여행사에는 최대 4백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지원은 PCR 검사, 방역물품 구매 등 안전 여행을 위한 운영비부터 홍보·마케팅 비용 및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훈련비까지 외래관광객 유치에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에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전체 지원금액 기준 사용 비율은 고용유지 지원(30.68%) > 디지털 전환(21.94%) > 홍보 마케팅(20.44%) > 영상 제작(14.31%) > 안전여행 운영비용(10.54%) > 전문가 활용비(1.15%) > 교육훈련비(0.94%)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사업 참여 업체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청와대 개방 관람, 도심 등산관광센터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 등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서울관광재단 관광사업 설명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협업 마케팅 설명회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었다. 또한 서울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관광 건강주치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참여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여사의 전반적 만족 비율이 94.2%에 달했으며, 인바운드 관광 재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95%로 나타나는 등 참여사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 사업에 참여한 (주)누리마이스 백규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원사업 덕분에 여행업을 희망차게 재개할 수 있었다”라며 “K-뷰티 정보 및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희망을 보았고, 앞으로는 K-뷰티 업체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해볼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누적 13,080개사, 약 384.5억 원을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였다.
-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러나 엔데믹이 다가오며 관광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시도 관광업계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02-2133-2826) | 게시일 : 2022.12.28.)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 2023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근로자 9만여 명 선착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월)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
-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음에도 신청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라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 게시일 : 2022.01.02.)

[부산광역시] 부산전남경남 사도지사, 남해안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뜻 모아

- 12.28.(수) 11:30 광양 월드마린센터서 부산·전남·경남 3개 시도지사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 상생협약 체결
- 케이(K)-관광의 미래 남해안, 글로벌 신해양 관광·휴양 중심거점으로 육성
- 박형준 시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도약할 것”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라남도, 경상남도과 함께 남해안 3개 시·도의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28일) 오전 11시 30분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남해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신해양 관광·휴양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케이(K)-관광을 견인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의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과 연계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구축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공동 발굴·추진 ▲케이(K)-관광 세계화 선도를 위한 관광브랜드 및 관광상품 공동 개발 ▲세계인이 찾는 휴양벨트로 만들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국가 주도의 광역관광권 개발을 위한 「(가칭)남해안권관광개발청」 신설을 위한 공동 노력 ▲사업 추진 동력확보를 위한 민·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하동 세계 차(茶)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3개 시·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와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남해안은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것”며, “지역이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특히,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부산을 찾아온 세계인의 발걸음이 통영, 순천, 여수 등 남해안 전체에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남해안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최도시 선정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전남도와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한편,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발굴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051-888-4322) | 게시일 : 2022.12.28.)

[대구광역시] ICT 융합기술로 대구 야간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 대구 최초 아나몰픽 미디어아트 영상 수성못 'MOTII'를 수놓다

- 대구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3대문화권(신라, 가야, 유교) 자원의 원형과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융합해 대구 최초의 아나몰픽(3D 실감형 콘텐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체험존을 조성한다.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대구 오딧세이 프로젝트 추진 및 체험기반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올해 초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 외부 전문가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수성못(수성구)과 앞산 빨래터공원(남구)이 최종 선정됐다.
-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성못에 위치한 수성못 관광안내소 ‘MOTII’ 상부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체험존은 기존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아나몰픽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광판으로 대구의 상징 수달의 귀엽고 활기찬 모습과 빛과 공간을 활용한 현대적 아트영상의 입체감을 실감할 수 있는 아나몰픽 영상을 구현했다.
- 또한 대구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 영상과 더불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기능도 추가하여 단순히 미디어아트 영상관람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그리고 남구 앞산빨래터 공원 내 위치한 벽천분수는 높이 9M, 폭 23M 정면부를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체험존이다. 대구의 대표 생태자원인 앞산권역의 가치와 의미를 담아낸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몰입형 미디어쇼와 앞산에 서식한 동물들을 활용해 만들어진 캐릭터가 자연 속을 뛰어노는 영상으로, 앞산의 생동감과 숲의 활력을 표현한 콘텐츠는 대구의 새로운 야간관광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성못 관광안내소 미디어아트 체험존과 앞산빨래터 공원 내 미디어파사드 체험존은 이달 말까지 현장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ICT 기술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대구의 새로운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다”며, “향후에도 수성못 MOTII와 앞산빨래터 벽천분수가 지역 작가 등 예술인들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캔버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관광과(053-803-3891) | 게시일 : 2022.12.27.)

[인천광역시] 백령도행 항공기 2027년 뜬다 ...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타 통과

- 2천18억 들어 50인승 소형공항 건설, 2025년 착공·2027년 개항 목표
- 주민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7일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2022년 제8차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25만4,000㎡, 76.8천평)에 총 사업비 2천18억 원*(국비)을 투입해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1,740억 원('17. 사업타당성조사) → 2,018억 원('22. 예타 통과), 278억 원 증가

** 활주로 1본(1,200m×30m), 계류장 5개소(21,500㎡), 터미널(1,700㎡)

□ 2014년 8월 옹진군에서 국토교통부에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소형공항 개발 건의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구체화 됐다.

□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백령공항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성 검토에서 비용/편익이 2.19로 높게 나와 사업 추진이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나, 2020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바 있다.

□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선정 사유*에 대한 대응용역을 시행해, 세 번째 도전 끝에 2021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 ① 선박·항공 예측수요 차이, ② 지방공항 건설 부진, ③ 지방공항 수익성 부족

□ 인천시에서는 정책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

□ 그동안 해상교통이 유일했던 백령도·대청도·소청도는 안개와 파도로 선박 운항이 자주 결항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야간운행 통제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그러나 공항이 개항되면 전국으로의 이동시간이 2시간 이내(공항이동 포함)로 크게 줄어들어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수도권(5시간→1시간 30분), 강원권(6시간→2시간 10분), 경상권(9시간→1시간 20분)

□ 또한, 항공교통이 해상교통에 비해 정시율이 20% 이상 높고, 결항률은 20% 낮아 섬 주민의 정주환경이 크게 좋아지게 된다.

* 정시율(해운 70%→항공 90%~), 결항·지연율(해운 26.3%→항공 7%)

- 뿐만 아니라, 섬 지역 접근성이 개선되어 잠재적 방문자들의 증가로 유발 관광수요가 발생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 앞으로 인천시는 2027년 백령공항 개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5년) 착공
- 이를 위해 인천시는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류충돌 문제에 선 대응하고자 지난 8일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저감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 2023년 4월까지 백령공항 주변지역의 개발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숙박, 관광, 레저, 의료 등 공항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정복 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서해 3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오랜 숙원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성과는 웅진군민과 인천시민의 염원, 중앙부처의 협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으로 함께 이룬 것으로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어 “또한, 백령공항이 조속히 개항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주변지 개발을 통해 서해 3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32) | 게시일 : 2022.12.27.)

[광주광역시] 내년 문화체육분야 국비 역대 최대

- 93건 1729억 규모, 전년 대비 5.2% 증가...아특회계 최초 500억원대
- 비엔날레 시라키비움·아시아캐릭터랜드 등 민선8기 주력사업 본격 가동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해 민선 8기 주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 광주시는 2023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544억원 보다 185억원 증액된 1729억원(93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444억원보다 70억원이 늘어난 51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초 500억원을 돌파했다. 광주EBS 아시아캐릭터랜드 구축, 디지털아트 컬처랩 운영, 아시아문화기술실증센터 운영 등 7건의 신규 사업과 30건의 계속사업비가 포함됐다.
- 이같은 성과는 정부예산안 최대치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광주시의 시기별·단계별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확보된 예산을 보면, 1995년 출범 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도약한 광주비엔날레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라키비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5억원이 확보됐다.
- 아울러, 광주EBS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비 58억원을 확보했다. 인지도가 높은 EBS 캐릭터들과 5G실감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을 결합해 최첨단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육을 접목한 가족형 문화체험공간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꿀잼도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 또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의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운영비 30억원이 반영돼 유네스코 창의도시간 교류를 통한 콘텐츠 창·제작과 인공지능(AI)와의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지맵(GMAP)을 미디어아트 교류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갈 계획이다.
- 올해 개관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의 첨단실감 콘텐츠 장비를 활용해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첨단 문화기술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 6억원도 확보했다.
- 이와 함께, 계속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조성 사업비 26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플랫폼 40억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비 7억4000만원 등 계속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돼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관광분야에서는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사업비 40억원, 예술관광중심도시 육성사업비 18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7억5000만원,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3억4000만원 등 활력도시 광주를 위한 인프라 구축예산이 반영됐다.
- 체육분야에서도 광주월드컵 경기장 육상트랙 개보수 6억9000만원, 서구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19억원 등이 반영되며 일상에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복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요성 시 문화체육실장은 “민선8기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도약을 위해 요청한 문화 예술분야 사업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시민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도시 광주’를 가시화 하는 동력을 확보한 만큼 국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실(062- 613-3420) | 게시일 : 2022.12.28.)

[강원도] 11월 강원관광, 아이·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동물 체험관광 각광

- 전년대비 홍천 휘바핀란드(462%), 평창 순수 양떼목장(345%) 방문 증가

- 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은 2022년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11월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125만여 명이며, 아이 및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동물 체험 관광지의 방문객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 11월은 통상적인 비수기임에도 방문객은 전년 동월 대비 121만여 명 늘어난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393만 2천여 명 감소한 26% 감소율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전월 대비 감소요인은 휴일 수가 10월 대비 4일이 짧은 점과 단풍 절정이 지난 계절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 중 해외 방문객은 총 20,210명으로 전년(98.6%)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한시적으로 허용돼왔던 일본, 대만, 마카오를 포함하여 11월 1일부터 8개 국가 대상으로 확대된 정부의 무사증(무비자) 추가 입국 허용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요 관광시장인 싱가포르는 전년 대비 442% 증가세를 나타냈다.
- 시군별 방문객 데이터에서는 전년대비 13개 시군의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이에 태백시(26%), 동해시(25%), 철원군(17%) 순으로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태백은 매봉산풍력발전단지(132%), 태백산 등산코스 일원인 백단사(112%), 몽토랑산양목장(34%) 등 자연 및 체험 관광지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11월 강원도 관광소비 규모는 약 1,62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억 원 감소한 -1%를 기록했으며, 전월 대비 또한 감소추세를 보여 463억 원 감소한 -22%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관광소비는 레저 및 (+11%), 음식(+1%) 부문증가와 숙박(-13%)부문 감소세를 나타냈다.
- 주요 관광지별로 분석하면, 홍천 ‘휘바핀란드’가 전년대비 약 462% 증가하였다. SNS 연관 검색어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인근의 실내외 동물체험시설이 관광매력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대비 10대와 40대의 방문객이 50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10대 자녀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 유형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평창 ‘순수 양떼목장’은 전년대비 약 345%의 방문객 증가하였다. SNS 연관 검색어 분석에 따르면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목장 및 카페로 애견 관광객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 또한 체류형 방문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강원도관광재단 원문규 관광마케팅실장은 “11월은 통상적인 비수기이지만 방문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강원도, 강원도관광재단(033-269-8947) | 게시일 : 2022.12.29.)

[전라남도] 전남서 즐기는 '요트체험' 인기만점

- 여수신안서 체험형 콘텐츠로 5개월간 관광객 2천568명 유치

- ☐ 전라남도과 전남관광재단은 5개월간 여수와 신안에서 '요트 체험 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 총 2천568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 '요트 체험 프로그램'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요트 관광상품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 ☐ 여수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해양관광산업 직업체험 ▲케이팝(K-POP) 밴드 선상공연 등을 운영하고, 신안에서는 ▲선장복을 입고 요트를 조종해보는 선장 체험 ▲SOS휘슬 기념품 증정 누리소통망(SNS) 이벤트 ▲선상 성악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했다.
- ☐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8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요트 탑승 관광객은 "다른 지역 요트는 단순히 해양 경관을 둘러 보기만 하는 것에 비해 전남은 요트 탑승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이고 재밌는 것 같다"고 밝혔다.
- ☐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요트체험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3년에는 누리소통망 인증 포토존을 구성하고, 야간 운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더 즐겁게 전남의 아름다운 해양과 섬을 체험할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10) | 게시일 : 2022.12.29.)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상품 효과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영주국립산림치유원 등 5개 거점시설 이용 관광객 647명 대상 분석
- '스트레스 및 수면의 질'개선에 긍정적 효과 검증
- 참가자의 동기에 기반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전략적 운영계획
- 23년 웰니스 관광과 의료 관광 연계프로그램으로 저변확대

-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22년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5개 거점시설의 상품운영에 대한 효과 및 성과 측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경북도는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로 지정받아 경북형 웰니스 관광을 집중 육성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결과로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 이번 연구는 경북웰니스관광 5개 거점시설인, 국립산림치유원(영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영양), 인문힐링센터여명(영덕),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금강송에코리움(울진)에 참가한 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그 중에는 코로나19 극복에 고생한 경북 의료·방역 인력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형 웰니스 특별프로그램」 참가자 235명과 웰니스관광 일반참가자 412명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 이번 용역을 수행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별철 교수)은 2022년 경북 웰니스 관광 상품의 참가자에 대한 효과 및 성과를 분석했고, 참가 동기에 기반해 세분화된 시장과 차별화 전략을 도출하여 제안했다.
- 조사결과, 참가자들은 경북 웰니스관광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재참가 및 추천 의도(5점척도 중 평균 4점이상)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경북 웰니스 관광 품질에 해당하는 자연환경 및 쾌적성, 프로그램, 인적서비스, 관광적 요소 등에 지역사회돌봄형 웰니스 특별프로그램 참가자는 평균 4.16점(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 0.0799), 일반참가자는 평균 4.30점(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 0.0471)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웰니스 관광 주요효과를 참가 전후로 나누어 조사한 참가자의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개선효과가 나타나 경북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의 긍정적 건강개선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
-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는 의욕개선과 신경완화 측면에 가장 개선효과가 높았으며, 수면

의 질의 경우 전반적 수면상태 만족과 자고 나서의 개운함과 관련한 항목에서 가장 크게 개선효과를 보였다.

- 또 경북도는 이번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일상탈출, 자연친화 경험, 특별한 경험, 사회관계개선목적 등 다양한 동기요인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상품 운영전략을 도출했다.
- 이를 통한 집단별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경북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하여 경북의 웰니스 관광 중심지 위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내년에는 바뀌는 웰니스관광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만의 웰니스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화, 융복합화, 국제화를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관광마케팅과(054-880-3213) | 게시일 : 2022.12.29.)